

보이스피싱 극성... 근절책은 낫잡

자신 몰래 300만원 게임업체로 빠져나가 070서 02로 번호 바꿔 중국 조직에 제공 국회 '방지법' 처리 지연... 서민 피해만 늘어

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에
도 불구하고,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보
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고
있다. 특히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
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일명 '보이
스피싱 방지법'이 지난해 9월 국회에
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
에서 비슷한 범죄가 잇따라 애꿎은
서민 피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.
◇계속되는 서민 피해=광주서부
경찰은 22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
터넷 뱅킹으로 통장에서 300여만원
이 인출됐다는 A(여·21)씨의 피해
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.
A씨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

돈이 지난 17일 수십여차례에 걸쳐
인터넷 게임업체 이름으로 빠져나갔
다고 경찰에 신고했다. 경찰은 누군
가 A씨의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
한 것으로 보고 대금 결제를 위해 접
속한 IP 주소를 확인중이다.
◇고도화·지능화되는 사기=광주
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 사기 조직에
발신번호 번호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
(사기 방조·전기통신사업법 위반)로
경찰은 22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
터넷 뱅킹으로 통장에서 300여만원
이 인출됐다는 A(여·21)씨의 피해
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.
A씨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

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'02', '15
XX', '16XX' 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
를 중국 전화 사기 조직에 제공하고
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사기범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번호
3000여개를 활용, 전자금융사기(보
이스피싱), 전화 대출사기, 성매매를
미끼로 한 '조건만남' 사기 등에 이용
한 것으로 조사됐다. 변조된 번호를
사용함으로써 중국에서 걸려왔더라
도 국내에서 걸려온 것처럼 교묘하게
속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.
경찰은 홍씨 등이 중국의 3개 사기
단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로
현재까지 600건 가량, 40억원 상당의
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.
◇여전한 전화 사기=전남지방경
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목포경
찰과 함께 전화를 이용, 금융권 대출
(39)씨를 구속하고 이 별정 통신사
대표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
구속 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'070'으로

을 구속하고,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한
이모(21)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
영장을 신청했다.
전씨 등은 지난해 11월 8일 대부업
체 상담원으로 속이고 정모(59)씨에
게 전화를 걸어 2500만원을 대출받는
데 우선 지급 이자를 납부하라고 피
어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
받고 있다.
◇"정치권 무관심도 한몫"=발신
번호 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
사기나 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
거를 마련한 일명 '보이스피싱 방지
법'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뒤
여태껏 계류중이다.정부는 지난해 2011
년에 한 차례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
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
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폐기됐던
찰과 함께 전화를 이용, 금융권 대출
이 힘든 서민이나 노인 등을 피어 대
대표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
구속 입건했다.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/양세열기자 hot@kwangju.co.kr

“우체국 털자” 경찰이 제안 檢, 여수 금고털이 중간수사 발표

여수경찰서 금고털이 경찰관이 사
실상 삼일우체국 절도 등 범행을 주
도했으며,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
업주에게 건네주고 뇌물을 받아 챙기
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
드러났다.
하지만 검찰은 일부에서 제기되고
있는 5년 전 관련 범죄 정보 입수 후
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
여수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인 김모
(45) 전 경사가 공범 박모(45)씨를
알게 된 것은 여수경찰서 산파출소
에서 근무하던 1997년 무렵으로, 김
경사는 '손 기술'이 뛰어난 박씨에게
먼저 은행 현금지급기 절도를 제안했
다.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22일 여
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 코너의 현금
지급기 내 현금 879만원을 훔쳐 나부
거졌다.
검찰은 이 여성피의자가 지난 2011
년 김 경사의 연락을 받고 난 후 실종
된 것과 관련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
사대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
향후 수사지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
방침이다.
지난해 12월8일 발생한 삼일우체
국 절도사건 역시 김 경사는 박씨에
게 범행을 제안해 망을 봤으며, 범행
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박씨가 포기의
사를 밝히자 이를 실책해 결국 5213
만원을 털었다.
하지만 검찰은 "일부에서 5년 전
다른 사건 수사 도중 금고털이 범행
사실을 이미 인지했으나 수사를 하지
않았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당시 수사
및 재판기록 35권 1만7000페이지 분
량을 정밀 분석했으나 그에 대한 근
거를 찾지 못했다"고 설명했다.
/순천=김은중기자 ejkim@

경찰은 이들에게 폭력 행위 등 처
벌에 관한 법률(공공 주거침입) 위반
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.
이들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을
택하다 보니 심야 공사가 불가피했
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러나 경
찰은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
지 않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.
일부 피의자는 김씨가 고압송전선
로 공사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
는 등 마찰을 빚어 양해를 얻지 않았
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.
/나주=송영희기자 yscn@

나원침 (8739) 김종두



호남권역재활병원 문열어
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서 열린 조선태 '호남권역재활병원'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. 156병상을 보유한 재활병원은 뇌 신경질환, 척추손상, 근육격려 질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·한방 협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'심야 도둑 공사' 한전 직원 등 5명 입건

개인 주택에 침입해 '심야 도둑 공
사'(광주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6
면 보도)를 벌인 업체 관계자 5명이
경찰에 입건됐다.
나주경찰은 23일 주인의 허락 없이
주택에 들어가 송전탑 설치 공사를
한 시공사 관계자 3명, 한전 직원 1명,
코레일 직원 1명을 입건했다.
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1시
부터 1시간여 동안 나주시 다시면 김
모(50)씨 집에 몰래 들어가 송전탑
설치를 위한 준비 공사를 한 혐의를
받고 있다.
/나주=송영희기자 yscn@

경찰은 이들에게 폭력 행위 등 처
벌에 관한 법률(공공 주거침입) 위반
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.
이들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을
택하다 보니 심야 공사가 불가피했
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러나 경
찰은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
지 않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.
일부 피의자는 김씨가 고압송전선
로 공사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
는 등 마찰을 빚어 양해를 얻지 않았
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.
/나주=송영희기자 yscn@

檢, 김재철 MBC사장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
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이수권 부
장검사)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
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
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
소했다.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8일 등
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
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국회에서의
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
로 검찰에 고발됐다.
/연합뉴스

치매 노인 택배차량 몰고 질주 '황당'

○뇌병변 장애
를 앓고 있는 60대
남성이 시내버스
운전 기억을 살려 도로변에 세워진
택배 차량을 몰고 1km가량을 질주하
다가 경찰에 들미를 잡히는 황당한
사건이 발생.
○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황모
(62)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경
광주시 서구 동천동 P 제과점 옆에
세워놓은 택배 차량을 운전자 최모
(39)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
로 몰고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경찰에
불합했다는 것.
○경찰은 황씨가 뇌출혈로 9차례
나 수술을 받은 뒤 장애 2급 판정을
받는데다, 최근 치매 증상 등을 보였
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
경위를 조사중. /양세열기자 hot@

불법 조업 아무리 단속한들... 석방 中어선, 목포해경에 1주일만에 또 나포

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줄지 않
고 있다. 정부가 불법 조업하다 적
발되는 중국 어선들에 물리는 벌금
(담보금)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음
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책
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.
목포해양경찰은 23일 새벽 1시
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흥도 서쪽

5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84t급 쌍
타망어선 노해어 51238호 등 2척을
배타적 경제수역(EEZ) 어업법 위
반 혐의로 나포했다. 이들은 1만
5000kg이 넘는 어획량을 올렸음에
도, 1720kg을 잡았다고 허위로 기
재했다는 게 목포해경 설명이다. 이
들 어선이 지난 15일 흑산면 가까

로 인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9000kg
초속 기재한 혐의로 나포돼 담보금
3000만원을 내고 풀려난 지 일주일
만이다.
앞서 지난해 2월 21일에도 중국
쌍타망 어선이 어획량을 초속 기재
한 혐의로 나포돼 2000만원의 담보
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3일만인 지

난 2월 24일 또다시 불법 조업 혐의
로 적발돼 3000만원을 내기도 했다.
정부는 지난해 12월 '불법
조업 종합대책'을 내놓고 기존 벌
금 기준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으나
불법 조업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
다는 게 단속 기관들의 설명이다.
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
2011년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
534척을 나포, 144억1600만원의
담보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불법
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165억8900
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.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목포해경, 표류 낚시 어선 22명 구조

여수해경, 화재 선박 10명 구해
해양경찰이 기관 고장으로 바다에
표류하던 낚시 어선과 화재가 발생한
선박에서 승선원들을 잇따라 구조했
다.
23일 오전 10시 30분경 신안군 흑
산면 가거도 서쪽 30km 해상에서 완
도선적 10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임
모(43·완도군)씨의 '스쿠루에 어망
이 감겨 표류하고 있다'는 긴급 구조
요청을 받고 목포해경이 출동, 1시간
30분여만 만에 선장 등 승선원 22명
을 구조했다. A호는 이날 새벽 1시경
목포 북항에서 출항, 가거초 인근 해

상으로 향해 중이었다.
앞서 이날 오전 7시경 여수시 백도
남동쪽 2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경
남 통영 선적 장어 통발어선(75t)에
서 불이 났다. 여수해경과 통영해경
은 불이 나자 3대의 경비 함정을 이용
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. 강모(42)씨
등 선원 10명은 구명정을 이용해 탈
출한 뒤 인근에서 조업하던 웅진호
(74t)에 옮겨졌다.
여수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
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
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/여수=김정희기자 chkim@

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(캐논총판) 문의전화 062)383-3000

2013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계획 공고

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폐광지역진흥지구(이하 "진흥지구"라 한다) 대체산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월 24일

지식경제부장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

- 지원규모: 120억원 이내**
 -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: 20억원
 - 공단 대체산업융자 준비금: 100억원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**
 - 지원대상
 -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,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,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
 -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
 -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
 - *1.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,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 시,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)
 - *2. 창업 및 이전기업은 당해 연도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함
 - 지원내용
 -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, 구조물, 구축물, 시설, 장비 등 자산의 구입·설치와 이와 관련된 자금 (* 단, 건물·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)
 -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(연구개발비 포함)
- 지원조건**

구분	기간(기/상환)	융자한도액	융자비율	대출금리
시설자금	5년/5년	50억원	소요자금의 80% 이내	분기별 변동금리('13.1/4분기 현재 1.75%)
운전자금	2년/3년	5억원	소요자금의 100% 이내	

 - *1. 융자한도액은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
 - *2. 운전자금은 '12년도 매출액의 1/4 이내로 지원하며, 기존에 운전자금을 지원받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신청절차**
 - 신청서류
 - 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(시·군 1부, 광단 1부)
 - 시설자금 산출내역서(설계서 구비)
 - 신청기간: 2013. 1. 24. ~ 2013. 3. 14.
 - 접수처: 해당 시·군 담당부서
- 기타사항**
 - ①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계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273호, '12.11.12.)에 의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은 정부예산이며, 공단 자체자금 융자는 정부예산과 별도로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융자하는 사업임
 - ③ 신청서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mireco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 - ④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'13년도 소요자금에 한하며, '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불용처리 함
 - ⑤ 본 융자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를 요함
 - * 지원 및 접수 관련 문의처

한국광해관리공단		지역진흥실	02-3702-6627
지 자 체	대 배 시 청	033-550-2106	
	삼 석 시 청	033-570-4391	
	정 선 군 청	033-560-2438	
	영 월 군 청	033-370-2282	
	보 령 시 청	041-930-3355	
	문 경 시 청	054-550-6762	
	화 선 군 청	061-379-3041	